

올 들어 은행株 20% 반등... 배당 확대 등에 주가 '휘파람'

KRX은행지수 상승세 가팔라
신한지수 24.57% 큰 폭 상승
주주환원 정책에 기대감 커져

새해 들어 은행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금융주 종목이 연초 대비 20% 이상 급등한 가운데 주주환원 정책 등의 확산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은행 지수는 올해 첫 개장일인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21.36% 오르면서 735.57에 장을 마쳤다. 특히 이날에만 전 거래일 대비 35.53(5.08%) 올랐다. 또한 이 같은 상승률은 한국거래소(KRX) 주가지수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대표 상장 종목 100개를 모은 'KRX100'이 8.86% 오른 것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상승률을



16일 서울 시내 은행 ATM기의 모습. /뉴스1

기록했다.

KRX은행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종목 주가 대부분이 크게 상승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신한지주는 이날까지 4만3800원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서

만 24.43% 올랐다. 뒤 이어 ▲KB금융 6만원(+23.71%) ▲하나금융지주 5만 2600원(+25.09%) ▲카카오뱅크 2만 9450원(+21.19%) ▲우리금융지주 1만 3300원(+15.15%) 등 높은 상승률을 기

록했다.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은행주들이 최근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지주의 경우 지난 2일 경영포럼을 통해 자본비율 12% 초과분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한지주는 분기 현금 배당 정례화, 자사주 소각 병행 등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나서면서 나머지 금융그룹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은행 종목에 대해 "높은 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은 26%에 불과했다"며 "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점진적 행보는 국내 은행주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비율과 건전성이 담보된다면 국내 금융지주가 배당성향을 높이는 것도 가능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국내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정책 도입을 촉구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7개 은행지주에 공개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국내 상장 은행이 해외 주요 은행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다며 주주환원 도입을 지적한 바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지주 자본비율이 글로벌 규제 수준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도 불가피한 근거가 없이 주주환원책의 자유도가 제한된 것은 관습에 가깝다"며 "최근 대형 일본 은행들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 정책을 발표하고,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은행지주에 주주환원책을 확대 요구하는 등 선진적인 자본정책을 제시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깡통주택' 우려에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급증

지난달 강제경매건 두 달 새 27% ↑
법원경매 시장 침체... 낙찰가율 뚝
낙찰가격 하락시 보증금 줄어들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로 얼어붙은 법원경매 시장에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유찰로 낙찰가격이 떨어질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는 5897건으로,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5186건) 대비 13.7%(711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는 6199건으로,

10월(4882건) 대비 26.9%(1317건) 증가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

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와 함께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심화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1526억원) 대비 22.0%(336억원) 늘었다.

업계에서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를 선택했지만, 현재 법원경매 시장이 극심

한 침체기를 겪고 있어 경매로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54건으로 이 중 483건이 낙찰됐다. 경매 입찰 물건 중 낙찰된 물건 비율을 뜻하는 낙찰률은 27.5%로 2004년 10월(27.2%)과 12월(27.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0%로 지난 2012년 8월(74.6%)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76.5%로 2013년 12월(79.6%)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80%선이 무너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낙찰가율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AI 반도체 핵심 NPU... 지금 투자 적기"

株라쿨라의 종목

오픈엠티테크놀로지

NPU 시장 개화기 진입 시점
리서치알음, 추가 전망 '긍정'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연구원은 '오픈엠티테크놀로지'에 대해 "아이언맨의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가 현실화되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가 반드시 필요하며 오픈엠티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 이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오픈엠티테크놀로지는 AI 기술을 엠티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AI 반도체 설계 지적재산권(IP)' 전문 기업이다.

엠티 환경이란 데이터를 서버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스마트

폰, 차량, 로봇 등 엠티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엠티는 NPU와 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다루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최성환 연구원은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은 시스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래픽 처리장치(CPU) ▲주문형 반도체(ASIC) ▲NPU로 발전되는 흐름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에 탑재되는 GPU 수요가 늘면서 엔비디아가 고성장했고, 최근 그 자리를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등이 ASIC 자체 개발로 대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데이터센터 뿐 아니라 엠티 디바이스와 공존이 가능한 NPU 시장의 개화기 진입으로 오픈엠티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오픈엠티는 매출액 16억원, 영업이익자 63억원을 기록했다. 주

요 매출 계획이었던 라이선스 계약이 지연되면서다. 단, 지난해 4분기부터는 라이선스 계약이 차질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현재는 AI 시장이 개화하는 시점으로 당장의 수익 체크보다는 급격한 매출성장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리서치알음은 오픈엠티에 대해 '긍정적'인 추가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2만 2000원을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최근 오픈엠티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격 메리트를 보유한 구간이라 생각한다"며 "챗GPT(ChatGPT)로 시작된 인공지능 테마는 이제 시작 단계로 파악되며, 앞으로 여러 엠티 디바이스에 동사의 IP, NPU, 칩셋 솔루션이 적용되면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KB자산운용 中 지수 추종 ETF 수익률 '쑥'

3개월 수익률 28.57%로 '1위'

KB자산운용은 MSCI 차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KBSTAR 중국MSCIChina ETF'가 3개월 수익률 28.57%로 국내 상장 중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1위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 방역 해제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중국 관련 상품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81개의 중국 관련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2.26%다.

'KBSTAR 중국MSCIChina ETF'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dex)에서 발표하는 중국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중국본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상장된 중국 신경제 관련기업에 투자한다.

구성종목을 살펴보면 홍콩에 상장된 텐센트(10.82%), 알리바바(7.81%)와 상해거래소에 상장된 평안보험, 미국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핀두오두오, 니오ADR 등이다.

금정섭 KB자산운용 ETF마케팅 본부 본부장은 "최근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완화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돼 글로벌 증시 대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시장의 경우 정부정책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 테마에 단기간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표지수형 ETF를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